

프란시스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에 따른 유튜브의 이해와 활용*

Understanding and Utilizing of YouTube by Francis Schaeffer's Christian Apologetics

강진구 (Jingoo K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present the strategies necessary to utilize YouTube in accordance with Francis Schaeffer's Christian Apologetics.

First, Francis Schaeffer's "Apologetics" approach allows Christians in Korea to more actively intervene on YouTube and fulfill the mission of the church needed for this era.

Schaeffer said the purpose of "Apologetics" was defense and communication. Defense is an argumentative defense to protect Christian faith from non-Christian or anti-Christian messages. Communication means delivering Christianity in a form that any particular generation can understand.

Second, it presents specific examples of making good use of the technical features of YouTube and realizing Francis Schaeffer's "Christian Apologetics." "Damascus TV" is a Christian YouTube channel that draws attention from both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in the YouTube world and carries out Christian Apologetics.

Third, it reveals the media characteristics of YouTube. And study the strategy Francis Schaeffer used to practice Christian Apologetics in L'Abri and apply it to YouTube. Francis Schaeffer is offering a strategy that Christians can use on YouTube.

From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we can make two suggestions that the Korean church needs. One is that the church needs a change in its perception of YouTube society, and the other is to establish a cultural strategy that suits the reality of YouTube. When the church uses YouTube as the site and tool of the ministry, it requires a different perception and attitude than in the past.

Key words : YouTube, Francis Schaeffer, Christian apologetics, Damascus TV, Christian worldview

* 2020년 08월 12일 접수, 10월 05일 최종수정, 10월 12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19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2019년 5월 11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교수,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194, moviejin1@naver.com

I. 서론-유튜브는 미디어 혁명이다

미국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가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의 인터넷 문화를 장악하고 있다. 2005년 유튜브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2020년 4월 현재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 명이 유튜브를 이용하며, 매분 500시간 이상의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고 하루 조회 시간은 10억 시간 이상에 이른다(Social Media Today, 2020.04.19).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달해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컨슈머포스트, 2020.07.09)의 경우 유튜브는 전 세대를 합쳐 가장 많이 이용한 동영상 앱으로 2020년 6월 한 달 동안 유튜브 앱을 1번 이상 이용한 사람의 수가 3,366만 명에 이르렀고 1인당 평균 1,540분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베타경제, 2020.07.28).

세계를 향한 한국의 유튜브의 활용 또한 놀랍다.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를 통해 온 세상에 ‘싸이’란 한국 가수의 존재를 알린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였다. ‘방탄소년단’의 경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방탄소년단이 제작한 2019년 앨범 ‘맵 오브 더 솔:페르소나’의 타이틀 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가 삼시간에 세계적 인기를 끈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였다. 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 공개된 지 불과 37시간 37분 만에 조회 수 1억 뷰를 달성했다(서울신문, 2019.04.15). 방탄소년단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인 셈이다.

유튜브가 단지 엔터테인먼트 수준에서만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사이트가 제공했던 지식과 정보의 통로 역할도 아울러 하고 있다. KT그룹 산하의 디지털 미디어랩 나스미디어가 발표한 ‘2019 인터넷 이용자 조사(NPR)’에 따르면 대상자 중 60%는 유튜브에서 정보를 검색한다고 응답했고, 10대의 경우는 유튜브를 통한 정보검색이 70%에 달함으로써 오락을 목적으로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생각을 넘어 유튜브가 검색 영역까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나스미디어, 2019). 한마디로 유튜브에는 궁금한 모든 것의 답과 더불어 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온갖 것들이 담겨 있는 세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유튜브 열풍의 현상들은 기독교 신앙과 일상의 삶을 통합하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숙제를 남긴다.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루려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유튜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서 ‘유튜브에 대한 지식’이란 유튜브의 현황을 인식하는 단순한 정보취득에 머무르지 않는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유튜브를 분석·판단하여 구체적인 참여와 행동에 이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온전한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초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 입장에서 유튜브를 체계적으로 조망하는 선행 논문은 나와 있지 않으며, 기독교 잡지에 교양 수준의 단편적인 글들만이 게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튜브의 영향력이 가속화되고 있고 심지어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직업순위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상위를 차지하는(서울경제, 2018.12.13) 현실에서 유튜브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인 조망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경험을 가진 한국교회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유튜브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넘어서서 보다 면밀하게 그 가치를 파악하고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유튜브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유튜브에 대한 기독교 변증학적 연구를 시행한다.

첫째는 프란시스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Christian Apologetics)’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은 무신론이 지배하는 현대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유튜브 안에서 문화선교를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웨퍼의 변증학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유튜브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될 수 있다.

둘째는 프란시스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유튜브의 사례를 분석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례분석을 통해 유튜브의 기술적 특징을 잘 활용하는 동시에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유튜브의 활동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다. 유튜브에 대한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적 이해를 적용할 수 있다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튜브를 단지 현장 예배를 중계하는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소극적 사고에 머무르지 않고 기독교의 진리를 세상에 소통시키는 복음전파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인식의 확장도 이를 필요가 있다.

셋째는 유튜브의 미디어적 특성을 밝히고 아울러 프란시스 웨퍼가 라브리에서 기독교 변증학을 실천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을 연구하여 유튜브에 적용한다. 프란시스 웨퍼는 라브리 사역을 통해 기독교 변증학을 몸소 실천했는데, 뜻밖에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유튜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웨퍼는 라브리를 찾아 온 다양한 평신도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에서 기독교 변증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일은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의 최종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보여준다. 웨퍼가 기독교 변증을 위해 활용한 전략들은 웨퍼의 저서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이디스 웨퍼와 웨퍼의 제자들이 남긴 자료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II. 프란시스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의 특징

기독교 철학자이며 ‘라브리(L’Abri)’를 통해 복음주의 운동을 펼쳤던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 1912-1984)는 현대사회에서 문화가 어떻게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고 지지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

쉐퍼의 문화관의 중요한 특징인 ‘변증학(Apologetics)’은 유튜브를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이해하는데 매우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변증학’이란 일종의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것을 뜻한다. 쉐퍼는 일평생 기독교 변증학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는 ‘변증학’의 목적을 방어(defense)와 전달(communication)이라고 말하였다(Schaeffer, 1994: 179). 여기서 방어는 비기독교 혹은 반기독교적 메시지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논증적 방어를 말하며, 전달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독교의 진리를 소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은 그가 활동하던 시절의 상대주의적이며 반지성주의적인 문화 분위기로부터 성경이 진리이며 인간의 삶을 하나로 꿰뚫는 통일적 지식을 제공한다는 확신 가운데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쉐퍼는 현대사회에서 우주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거대 담론’이나 ‘전통적인 철학’이 사라지면서 인간의 정신세계가 위기에 직면했음을 간파했고 그는 이를 ‘통일적 지식의 붕괴’라 불렀다(성인경, 1996:25-26). 인간의 실재에 대한 의미를 무너뜨린 실존주의의 성행과 성경적 정통성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현대신학, 그리고 뭔가 영적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져 버린 당시 사회상에서 쉐퍼가 발견한 것은 성경을 통한 진리의 통합이었다(박삼영, 1995: 52-57). 성경을 통합의 원리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예술 등을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믿었다.

기독교 신앙은 비합리적이며 지성과 무관하다고 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신비주의적 체험을 기독교 신앙으로 대체시켰던 교회의 모습과는 달리 쉐퍼는 기독교 신앙은 지성과 연관이 있으며, 아울러 ‘체험적이며 지성적(experiencial & intellectual)’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성인경, 1996: 95-96). 기독교 신앙이 지성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쉐퍼가 비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기독교 변증의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쉐퍼가 기독교 변증의 방법으로 지성에 바탕을 둔 합리성을 사용한 것은 코넬리우스 반틸(Cornelius Van Til)과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큼 오해를 사기도 했다. 논쟁의 핵심은 신자와 불신자 간의 접촉점에 대한 것이었다. 반틸은 먼저 신과 인간 간에는 접촉점이 존재한다고 보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접촉점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인간에게 내보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비신자의 자율적 이성 자체에는 진리를 판단할 기준이 들어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성인경, 1996: 207-211).

이에 대해 이상원은 웨퍼가 철저한 복음증거자란 사실을 강조하면서 웨퍼의 변증학에서의 이성을 제시한 것은 어디까지나 불신자가 가지는 자기모순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신자와의 대화의 접촉점으로 사용한 것임을 밝혔다.

웨퍼가 논리적 일관성을 강조한 것은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뿐, 불신자가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진리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한 것은 아니다. 웨퍼가 말하고자 한 것은 불신자도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기대와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학문적인 논의와 탐구를 시작하기 마련인데 - 그가 결과적으로 진리 또는 논리적 일관성에 이를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 전도자는 바로 그 점을 전략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원, 2003: 37).

웨퍼가 라브리를 찾아온 다양한 무신론자들과 비기독교인들을 환대하면서 변증학으로서 불신자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했을 때 가졌던 지성 혹은 합리성이란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방어하는 가운데 전도를 위한 접촉점이며, 동시에 신앙은 믿을 수밖에 없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이상원, 2003: 38).

현대사회에서 기독교는 웨퍼가 활동했을 때 보다 무신론자들로부터 공개적인 공격을 더욱 많이 받고 있다. 대학과 학문의 영역에서 기독교의 관점과 성경적 이해를 동원하는 일은 외면과 조롱거리가 되었고¹, 현대인들은 리처드 도킨스와 칼 세이건 그리고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기독교의 사상에 반(反)하는 주장을 펼치는 학자들의 주장에 의해 전도되었다. 유튜브를 통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세계관의 대결에서 웨퍼의 변증학으로서의 ‘방어’는 여전히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으로서 그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웨퍼는 그의 다양한 저술과 강연 그리고 영화제작 활동이 의미하듯이 ‘방어’보다 ‘전달’에 관심이 많았다. 즉 그는 어떤 특정한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기독교를 전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웨퍼의 이 같은 변증학은 일종의 ‘문화 선교’ 로써 유튜브 안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기독교 진리를 문화를 통해 소통할 때 필요한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바울의 아덴설교 장면은 웨퍼가 자신의 기독교 변증학에 대한 성경적 예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현시대의 유튜브 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선교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다.

1) 다큐멘터리 영화 ‘추방, 허용되지 않은 지성(Expelled: No Intelligence Allowed)’(2008)은 서구 사회에서 지적설계론을 인용한 학자나 연구원, 과학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추방되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인간이 우연이나 진화의 산물이 아닌 지적인 존재에 의해 창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연구에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신랄한 비난을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야 하는 오늘날의 현실은 현대사회가 지성의 전당인 대학과 학문의 세계에서 조차 결코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도바울은 우상이 가득 찬 아덴의 문화를 보며 마음에 분함이 일어났지만(16절) 우상을 파괴하는 격한 행동을 벌이거나 회피하기보다는 그들의 문화적 양태를 관찰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선교의 맥을 잡아갔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행17:22-23).”

사도 바울은 우상이 가득 찬 아덴의 문화를 보며 그 안에 사는 아덴 사람들의 문화적 성향을 발견했다. 그리고 특별히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스의 다신(多神)문화는 일종의 기능적 개념으로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영역마다 신을 만들고는 그것에 의지하여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혹시라도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신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상을 만들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신’을 거론하며 아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상을 설교했다.

여기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복음전파 전략은 문화적 이해를 동반하며, 그 문화 안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을 접촉점으로 삼아 복음을 증거하는 문화선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웨퍼연구소장을 역임한 제람 바즈(Jerram Barrs)는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아덴 설교를 문화를 접촉점으로 하는 전도의 중요한 사례로 들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바울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설교의 대상자들과 다리를 만들어 가는 작업을 먼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믿는 믿음이 가지는 문제점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첫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가 갖고 있는 옳은 것, 잘하는 것, 접근이 가능한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Barrs, 1995: 77).

유튜브는 세상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이며 현대인들의 성향이 파악되는 현장이다. 다시 말해서 웨퍼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문화적 접촉점으로 오늘날 유튜브만큼 좋은 것은 없다. 비록 유튜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아덴의 광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현대인을 만나기 위해 가장 좋은 장소는 유튜브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유튜브에 접속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현대인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 성장

한 새로운 세대에게 유튜브가 복음소통의 도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복음소통의 도구로서 당대의 중심 문화를 활용한 예는 쉐퍼가 영화제작에 관여한 사실로부터도 확인될 수 있다. 쉐퍼는 1976년, 아들 프랭키 쉐퍼(Frank E. Schaeffer, Jr)와 함께 자신의 명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How Should We Then Live?)’를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 북아메리카 전역을 순회강연하며 이 영화를 함께 상영한 일이 있었다. 쉐퍼의 전기 작가인 콜린 듀리에즈에 따르면 청중들의 반응은 대단히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Duriez, 2009: 325).

현대의 세속적이며 상대주의적인 문화를 기독교의 역사적 철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결코 쉽지 않은 이 책을 영화화한 사실은 프란시스 쉐퍼의 변증법에 따른 전달의 역할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쉐퍼의 변증법에서 전달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예술이 효율적인 메시지 전달의 수단임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는 ‘예술은 모든 유형의 메시지에 사용될 수 있다’(Schaeffer, 2001: 47-48)고 언급하며 예술을 단지 비판적 수용의 대상으로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훌륭한 도구의 역할에도 주목했었다. 아울러 그는 ‘예술로 표현된 것은 그 세계관을 더욱 강화시킨다’(Schaeffer, 2001: 37-38)고 보았다. 그 예로서 쉐퍼는 렘브란트가 그린 “푸주간에 매달린 쇠고기의 옆면”이란 그림을 제시했었다. 즉 그는 실제 현실에서 푸주간에 걸려있는 쇠고기를 볼 때와는 다르게 미술작품으로서 감상할 때는 더욱 강렬한 인상을 주며 이전처럼 피상적으로 볼 수 없음을 언급했던 것이다. 이는 예술이 매우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일상의 것을 특별한 것으로 인식시킬 수 있음을 뜻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가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영화라는 대중예술에 주목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유튜브가 다양한 동영상을 통해 다양한 예술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하게 만든다.

III. ‘다마스쿠스 TV’²⁾에 나타난 유튜브의 기독교 변증 사례

‘다마스쿠스 TV’는 호기심과 선정적인 콘텐츠가 넘치는 유튜브 세계에서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의 관심을 끌어내어 기독교 변증 전략을 펼치는 대표적인 기독교 유튜브 채널이다. 이 채널의 진행자는 약학을 전공하고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다메섹’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20대 후반의 청년

2) ‘다마스쿠스 TV’는 온라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선교단체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1차 자료는 유튜브 상에서 운영중인 두 채널 ‘다마스쿠스 TV’와 ‘On the Road to Damascus’를 포함하여 다마스쿠스 블로그(<https://blog.naver.com/osm4709>), 다마스쿠스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ontheroadtodamascus/>), 그리고 다마스쿠스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Ontheroadtodamascus1>) 등을 참고하였다.

기독교인이다. 채널에 등장한 진행자의 이미지는 어느 교회에서나 만날 수 있는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유튜브 채널의 진행자가 젊은 기독교인이면서 세계의 문화중심지 뉴욕에 거주하는 유학생 출신이란 점은 다마스쿠스 TV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해 본 교회 청년이라면 의례 가졌을 법한 성경과 신앙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목회자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학자들과의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답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봤을 궁금하거나 의문점에 대해서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답을 구하고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무신론자나 비신앙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는 의문을 제시하고 기독교인의 믿음에 대한 정직한 이해와 바른 성경 지식을 전달받도록 하는 점도 이 채널이 적지 않은 수의 고정적인 독자들을 갖게 된 이유라 할 수 있다.

특히 진행자가 미국 유학생으로서 영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유튜브 채널에 이미 올려진 다양한 기독교 명사의 기독교 변증 관련 영상을 번역하여 소개함으로써 매우 유익하게 작용하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1월 'On the Road to Damascus'란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처음 개설할 당시의 의도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크레이그(William Lane Craig) 교수의 영상을 번역하여 올리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크레이그 교수의 장점과 한계점을 함께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라비 재커라이어스(Ravi Zacharias),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 팀 켈러(Tim Keller) 등으로 점차 변증학자들의 범위와 이들이 다루는 기독교 변증학의 주제를 넓히기 시작했다. 그 이후 2017년부터는 번역 영상을 넘어서 다양한 주제를 펼치는 종합채널의 성격을 가지고 '다마스쿠스 TV'를 새롭게 개설하여 기독교 변증 사역을 지금까지 펼치고 있다.

'이성적인 신앙과 변증'을 목표로 삼는 다마스쿠스 TV의 주요한 특징은 첫 방송에서부터 나타났다. 2017년 11월 27일 '만들어진 신'의 저자이자 무신론자들의 대표 격인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와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옥스퍼드대 수학 교수인 존 레녹스(John C. Lennox)와의 토론을 한글자막을 넣어 라이브로 생중계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기독교의 의문점들에 대한 논리적 답변들을 다룬 영상들이 이어졌다. 윌리엄 크레이그의 '크리스천이 왜 기독교 변증을 배워야만 하는가'와 존 파이퍼(John Piper) 목사와 팀 켈러 목사의 'C.S. 루이스를 말하다'와 같은 대담 영상들도 한글자막을 입혀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유튜브의 행보를 보여주었다.

Table 1. Key YouTube video content of 'Damascus TV'(2020. 08. 10)

게시 일자	제 목	조회수	상영시간
2015.10.07	「만들어진 신」에 대한 응답(feat.알리스터 맥그래스)	26, 443	02:32
2017.11.27	어느 철학자의 일침, 리처드 도킨스는 낙제 수준이다	3, 448	02:28
2018.02.10	기독교인으로서 백워드매스킹에 대해 폭로합니다	15, 642	40:38
2018.03.29	[무신론자와의 대화 3] “하나님은 왜 안 믿으면 지옥에 보냅니까?”	17, 478	34:31
2018.04.02	뉴욕 힐송교회의 충격적인 부활절 예배 근황 (직찰)	373, 443	02:36
2018.10.29	왜 세계관과 철학이 중요한가? (기독교인들 7분 안에 설득해드립니다)	8, 221	07:15
2018.11.27	토론:신은 존재하는가? 다마스쿠스 vs 천문학도 무신론자	15, 589	1:09:46
2019.04.07	국내 최고 권위자 모셨습니다. 기독교를 구한 인류학자, 르네지라르의 세 가지 기둥을 알아보자	8, 609	40:39
2019.06.09	최고의 교회 오빠와 함께하는 뉴욕 브이로그(를 가장한 진지토크 주의)	6, 448	21:13
2019.06.18	분당우리교회 동성애 설교 사태 총정리와 나의 생각	738, 236	15:34
2019.08.01	기독교 유튜브 VS 하버드, MIT생 1부: 신에 대해 토론할 수 있을까?	98, 138	50:47
2019.08.30	영화 기생충의 2가지 실패와 기독교적 돌파구	82, 186	22:45
2020.04.15	마음에 안들면 박제하는게 능사인가요?-무분별한 교회 비판에 대한 소신 발언	4, 555	10:25
2020.04.20	기독교는 패배자들의 자기위로에 불과할까	3, 582	03:49
2020.06.10	내가 노숙인들과 대화를 통해 깨달은 것	2, 771	11:07
2020.07.15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feat. 존 레녹스)	5, 247	03:31
2020.07.30	옥스퍼드 수학자 존 레녹스에게 물었습니다 (feat. 베리타스 포럼)	5, 672	03:08

다마스쿠스 TV에 방송된 동영상 콘텐츠들을 보면 세상 속에 사는 기독교인이 듣고 보고 경험하는 일들에 관해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이해를 추구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특징들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다마스쿠스 TV는 웨퍼의 기독교 변증의 특징인 ‘방어’와 ‘전달’에 모두 능하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콘텐츠들이 비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버드와 MIT 같은 미국 유수의 명문대학원생들과 신의 존재에 대해 솔직한 대답(2019.08.01.)을 나누면서 과학과 신앙 간의 주제를 다루는 면은 어떤 예배나 설교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독교 변증의 강점을 보여주었다. 이성 중심의 생활에 익숙한 과학도를 통해서 비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적이며 역사적인 이해가 동반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면은 기독교 변증의 측면이 유튜브에서 매우 의미 있게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둘째는 세상의 사회문화적 사건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적용을 매우 잘하고 있는 점이다. 다마스쿠스 TV에서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콘텐츠는 ‘분당우리교회 동성에 설교 사태 총정리와 나의 생각(2019.06.18.)’이다. 이 채널의 운영자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한다는 개인의 성경적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아울러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인 한국 기독교인의 행동에 대해서 갖는 교회 안의 또 다른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유튜버들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뉴욕에 살면서 매일 마주치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갖는 강한 거부감과 저항감이 실제로는 폭력에 가까움을 느끼면서 두려워했다는 증언은 서구사회의 동성애 문화 현실을 느끼지 못하는 한국의 기독교인에게는 매우 충격적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기독교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콘텐츠(2020.07.15.)와 이에 대한 최신 저술을 발표한 존 레녹스 교수와의 화상 인터뷰(2020.07.30.)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들을 유튜브로 끌어내어 현실사회문제에 대한 기독교인의 신앙적 필요를 채워줬다는 점에서 시의성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젊은 유튜버들의 눈높이에 맞게 유튜브의 기능을 적절하게 살린 점도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다마스쿠스 TV는 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매우 다양한 포맷으로 연출되고 있다. 진행자의 준비된 얘기를 들려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유튜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슈를 다루고 중요 인사를 초청하거나 화상 인터뷰를 시도하며, 온라인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점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갖는 유튜브의 기능을 잘 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식 또한 현장녹화(2018.04.02.)에서부터 브이로그 형식의 토크쇼(2019.06.09.)와 같이 카메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을 구현했다.

고무적인 것은 이 채널의 진행자가 청년이라는 사실이다.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젊은 감성과 이 시대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은 기존 교회가 제작한 설교나 부흥 집회 영상 콘텐츠들 안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세상 유튜버들과의 관심과 소통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유튜버의 형식과 감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역량을 갖춘 기독교 크리에이터의 등장이야말로 유튜버 시대에 기독교의 문화선교전략을 펼칠 책임자임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다.

다마스쿠스 TV가 기록한 조회 수는 역대 수입을 올리는 유명 크리에이터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구독자와 조회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들은 진행자가 스스로 삭제하기 전까지는 살아있으며 그 영상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유튜버들은 앞으로도 계속 출

현한다는 점에서 유튜브를 통한 웨퍼의 기독교 변증 방식은 시간이 흘러도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랜선교회 TV’는 ‘다마스쿠스 TV’의 분립에 따른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다마스쿠스 TV의 제작진 중 일부는 ‘랜선교회’의 이름을 갖고 창조적인 분립을 이루었다. 즉 다른 채널을 만들어 독립했다. 이것은 유튜브에서 기독교 변증 형식의 채널이 꼭 하나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능력을 통해서 기독교 변증을 다채롭게 이루어갈 수 있음을 뜻하는 일이기도 하다.

Table 2. Key YouTube video content of ‘Lan Mission TV’(2020. 08. 05)

게시일자	제 목	조회수	상영시간
2020.06.27	‘메’로나와 인터넷 예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440	08:08
2020.07.11	구교vs신교: 이거 답 나올까요?	640	11:00
2020.07.25	치리: 교회에서 쫓겨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9	08:11
2020.07.31	예정론: 저는 선택되었나요, 유기되었나요?(갈뉘브X태혁주의 라방 하이라이트)	271	07:13

다마스쿠스 TV는 오직 운영자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능력에 의지해서 만드는 1인 미디어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다마스쿠스 TV는 개성이 살아있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현실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선교 공동체의 성격을 갖는 랜선교회 TV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생각들을 반영할 수 있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을 통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랜선교회 TV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눔과 교제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한 토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점에서 교회 공동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참고할 만한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기독교 변증을 실행하는 공동체 라브리틀 세운 프란시스 웨퍼가 살아있다면 유튜브를 활용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³ 다마스쿠스 TV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웨퍼의 기독교 변증 사역

3) 한국 라브리 대표 간사인 성인경 목사는 본 논자와의 인터뷰(2020.09.11.)를 통해 만일 웨퍼 박사가 생존해 있었다면 유튜브를 통한 기독교 변증 사역을 적극적으로 펼쳤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왜냐하면 웨퍼 박사는 인생의 고민을 갖고 라브리틀 찾아온 무신론자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보낸 사실로부터 신앙이나 세상의 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는 기독교 변증가의 역할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라브리틀 찾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녹음테이프를 활용했고 나아가서 영화제작이 보여주듯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은 그가 유튜브를 접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국제 라브리틀은 별도의 공식 유튜브 계정을 갖고 있지 않으나 간사 개인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아울러 국제 라브리틀은 웨퍼 박사의 강연과 활동 그리고 라브리틀의 많은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을 생각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쉐퍼의 과거 활약상을 되짚어볼 수 있다면 쉐퍼는 기독교 변증의 도구이자 활동공간으로 유튜브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쉐퍼는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상이 미디어를 통해 널리 전파되는 일에 큰 관심이 있었다.

이디스 쉐퍼(Edith Schaeffer)는 그의 남편인 프란시스 쉐퍼가 비트족이나 히피, 마약 중독자, 동성연애자 그리고 심리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아프리카나 인도인, 구세대와 신세대 등 인종과 국가, 연령을 초월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예술가에서 농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촉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Schaeffer, 2018: 351). 그리고 쉐퍼의 강연을 녹음하여 테이프를 복사하고 세계 곳곳에 공급함으로써 녹음테이프를 통한 사역이 성공적이었음을 아울러 언급하고 있다(Schaeffer, 2018: 344-345). 다양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아울러 그 당시 최첨단 미디어 문화를 이용했던 ‘테이프 사역’을 통해 기독교 변증을 실행한 프란시스 쉐퍼의 태도는 온 세상을 상대로 복음의 수호와 전파가 가능해진 유튜브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예상할 수 있게 만든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너무도 넓으며 기독교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일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 유튜브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모여드는 광장과도 같은 곳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과거와 같이 현실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어 선교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유튜브는 전염병과 상관없이 만민에게 열려있으며 만민이 모여드는 곳이다. 이는 유튜브 문화를 이해하는 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점인 동시에 다양한 문화와 언어로 이루어지는 유튜브의 세계에 기독교 변증가들의 출현이 앞으로도 계속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다.

IV.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에 따른 유튜브의 활용 전략

프란시스 쉐퍼가 그의 기독교 변증학으로서 ‘전달’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에 비추어보았을 때 유튜브는 미디어적 특성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판단할 수 있으며 보다 세부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유튜브를 미디어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다소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 TV나 라디오와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미디어와 달리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와 통신이 결합된 유튜브는 ‘콘텐츠와 네트워크의 결합체’라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김영환, 2007: 16). 즉 유튜브에서 개인과 집단이 올리는 영상물들은 콘텐츠가 되지만 이 콘텐츠들은 유통망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

서 TV와 같은 조직화 된 생산자가 일방향으로 내용물을 전달하는 전통적인 미디어와는 매우 다를 수 밖에 없다.

IT산업에서는 유튜브를 미디어로 간주하기 보다는 플랫폼(Platform)으로 이해하고 있다. 플랫폼이란 글이나 사진 혹은 동영상 같은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수단을 말하는데 이 플랫폼이야말로 글로벌 IT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체로 여기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때 플랫폼은 사용자들을 연결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을 통해 참여자들이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Parker, 2017:49). 이것은 플랫폼이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 미디어의 가치관과는 달리 사적이며 경제적 이익이 우선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페이스북이나 이베이, 위키피디아, 인스타그램은 우리에게 익숙한 대표적인 플랫폼들이며 SNS와 1인 미디어의 특성을 결합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Social Media Platform)’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가운데 유튜브는 가장 혁신적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다.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이해하는 이유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정보 통신기술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람과 조직, 자원을 연결하는 쌍방향(interactive) 및 다중소통의 생태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플랫폼이 보여주는 ‘일대 다(one to many)’ 간의 연결구조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동시다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매스 미디어의 특징을 간직함과 동시에 극히 개인적인 선호에 따른 편향적 수용과 전파가 가능한 1인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특징을 간직한 유튜브에서 프란시스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을 실현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몇 가지 활용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평신도 전문가들의 참여

유튜브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 사역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문분야의 평신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 콘텐츠의 제작자나 이용자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민족과 종교, 인종적인 차별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소수 엘리트만이 주도했던 미디어 권력을 개인도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떠한 차별이나 사회적 장벽을 모두 걷어냈다. 특히 국가권력이 주도하는 언론의 편향성이나 통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개인 콘텐츠를 통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보다 민주주의 사회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종교 편향성 논쟁도 피할 수 있다. 즉 유튜브는 공영방송에서는 하지 못하는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얼마든지 담아낼 수 있다. 거기다 교회라는 조직과 구조 안에서 수용하기 어려웠던 평신도 개개인의 신앙과 관심 분야를 적극적으로 콘텐츠화시켜 세상에 내보내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유튜브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적용되는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동역자 의식을 갖는 일이 필요하고 더불어 바른 신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만인제사장주의(Priesthood of All Believers)'가 가톨릭의 성직자 중심의 사역으로부터 탈피하여 모든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성직자와 같은 신앙의 가치를 구현하도록 도전을 준 것처럼 유튜브라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파에서 성직자들은 성도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동역자 의식을 갖고 성도들이 유튜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성경에 부합되도록 바르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익히고 이를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성직자는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적 입장과 더불어 기독교 세계관으로 준비된 성도들을 양육하여 유튜브 속으로 파송할 필요가 있다.

라브리에서 강의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쉐퍼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교회가 유튜브 활용 전략으로 평신도 전문가들의 참여가 의미 있음을 보여준다. 즉 라브리에서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을 체험한 라브리 멤버들과 간사들은 분야는 다르지만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을 실천하고 있었다.

출판 영역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책과 소책자들이 이미 출판되었으며, 간사들만이 아니라 젊고 창조적인 시인, 작가 그리고 예술가들도 20세기를 사는 세대에게 진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브리의 젊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진리로서 전달할 수 있는 영화를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브리에 있는 한 배우는 현재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정 설계사, 조각가, 사진가, 교육자들도 여러 아이디어로 흥분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성의 결과물이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는 추측만 할 따름입니다(Schaeffer, 2018: 346).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이 유튜브 안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다마스쿠스 TV'에서 나타나듯 기독교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 성직자들만의 권한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창조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는 유튜브가 지닌 웹2.0의 특징들이라 할 수 있는 참여(participation)와 공유(sharing) 그리고 개방(openness)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에 적합한 일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유튜브에서의 기독교 변증은 웹의 내용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방식에서의 개방성과 공개 커뮤니케이션, 공유와 사용의 자유를 수용하는 방식으로서의 기술적 특징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권위의 분산과, 공동체, 투명성이라는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와도 연계되어 있어서 성직자 중심의 권위적이며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탈피하고 평신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윤영훈, 2010: 126-127).

2. 이중 언어의 사용

기독교 세계관 전문가들은 현대문화 속에서 기독교 변증을 펼칠 때 갖춰야 할 중요한 능력으로 ‘이중 언어(bilingual)’를 제시하고 있다.⁴ 즉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언어 외에 자신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언어를 통해 기독교 변증을 시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라브리를 통해 예수를 믿고 세계적인 복음의 전도자로서 활동 중인 낸시 피어시(Nancy Pearcey)는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법, 즉 복음의 관점을 우리 문화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Pearcey, 2006: 133-134).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과의 소통에 실패하며 그에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앙의 언어만을 사용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웨퍼에게 있어서 이중 언어의 사용은 궁극적으로 현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변증학의 적극적인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아무도 기독교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많은 목사들, 선교사들, 그리고 기독교 교사들이 그들 주변의 교양인들과 대중들에게 말하고자 할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우리 세대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사실을 유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변증학의 적극적 측면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현세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Schaeffer, 1994: 181).

웨퍼는 새롭게 세상에 등장한 영상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영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객관적 비평’을 시도했다. 이것은 기독교라는 안경을 끼고 작품에 찬성이나 반대를 표하거나 메시지의 유무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세상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작품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작가의 사상, 시대 상황, 예술성, 기술성 등을 먼저 객관적으로 음미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성인경, 1996: 30-31). 여기서 객관성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의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의 언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언어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에 따라 유튜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중 언어란 무

4) 기독교 철학자이자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강영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 언어’ 능력을 갖기를 호소했다. 본인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그는 자신의 전공인 철학 분야의 언어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올바르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함을 언급했다. 그는 믿음의 언어를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예술과 학문 영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세상의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야말로 ‘완전한 진리’가 보여주는 특징임을 밝혔다(Pearcey, 2006: 20-21).

엇인가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구하기란 쉽지 않지만 유튜브를 생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기독교 변증을 실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언어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 수는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2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로서 의사소통 스타일에 있어서 항상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고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특징을 보인다(Lancaster·Stillman, 2010: 279-280)는 점에서 유튜브를 통한 소통법을 그들에게서 엿볼 수 있다.

임홍택(2019)은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간단하거나’이며, 둘째는 ‘재미있거나’이고, 셋째는 ‘정직하거나’이다. 이 특징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의 특징인 동시에 그들이 유튜브에서 활동하거나 타인과 소통할 때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기도 하다.

‘간단하거나’는 ‘길고 복잡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특성을 보여준다는 뜻이다. 문화상품권을 ‘문상’으로 줄여서 부르거나 ‘ㅇㄱㅇ(이거레알)’ 등의 자음 초성으로 만든 신조어들은 카톡과 같은 SNS와 게임 중 사용하는 채팅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문화가 일상화된 앱 네이티브들에게는 책을 읽는데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임홍택은 이를 90년대 생들의 뇌 구조가 더 이상 기존의 긴 소설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단언한다(임홍택, 2019: 91).

‘재미있거나’란 삶의 유희를 추구하고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질서나 권위에 대해 답답하고 숨막히는 것이라고 여기는 성향을 말한다. 흔히 웹툰에서 사용되었던 ‘병맛’이란 결말로 끝내는 만화는 이에 대한 적절한 예로 거론된다. ‘병맛’은 ‘맥락없고 형편없으며 어이없는 것’으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유머나 코미디와는 전혀 다르다. 이에 대해서 임홍택은 완전무결함만 살아남는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와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증가 때문이라는 시각을 제시한다(임홍택, 2019: 98-99).

마지막으로 ‘정직하거나’는 90년생들에게 혈연, 지연, 학연을 당연하게 여기던 기성세대의 문화를 일종의 적폐로 여기는 경향을 말한다(임홍택, 2019: 112). 성공의 원인이 순수한 노력과 열정이 아닌 숨겨진 비리로부터 기인한 것일 때 밀레니얼 세대는 분노한다.

임홍택이 제시한 밀레니얼 세대의 세 가지 특징은 그리스도인이 유튜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중 언어에 대한 완벽한 적용법이라 볼 수는 없지만 새로운 세대를 대상으로 유튜브상에서 활동할 때 언어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짧고 간결한 문체를 사용해야 함과 동시에 권위를 내세우는 언어사용은 지양하며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부족하더라도 흥미로운 소재를 끌어내어 정직한 자세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어야 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 사용자가 밀레니얼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유튜브에

서 이중 언어의 사용은 결국 콘텐츠의 성격과 수용대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즉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외에도 어린이나 청소년 혹은 노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콘텐츠를 만들 때는 주 구독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믿음의 내용을 구독자가 자신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중 언어 활용에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3. 인기주의와 상업주의의 극복과 기도

유튜브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가운데 경제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자세가 필요하다. 첫째는 상업주의(commercialism)와 인기주의(populism)에 영합하지 않는 일이다. 조회 수와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거나 돈벌이 수단에 집착하여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는 기독교 변증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지성 안에서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비신앙인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만의 특별한 전략을 세우는 일이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프란시스 웨퍼가 라브리리를 통해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

유튜브는 선정성과 상업주의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미디어가 갖는 부정적 기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유튜브는 조회 수와 구독자 수에 따라 광고가 붙고 이익이 창출되는 시스템으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자극적인 내용이 적지 않다. 유튜버들은 인기 있는 채널을 소유함으로써 많은 돈을 짧은 시간 안에 벌기 위해서 비윤리적이며 선정적인 내용을 다루는 상업주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2020년 한국의 인기 유튜버들에게 경종을 울렸던 ‘뒷광고’ 논란은 상업주의 물든 유튜버들의 비윤리적 행동을 보여주었다. ‘뒷광고’란 특정 회사로부터 협찬 물품이나 광고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독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진행하는 홍보를 말한다. 즉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하는 홍보임을 알리지 않은 채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SNS를 통해 제품을 노출시키거나 사용 소감을 전달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다. 이것은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에게서 나타나는 기만행위지만, 유튜버가 다른 어떤 매체 보다도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일이기도 하다. 인기 유튜버들의 경우 구독자들이나 다른 유튜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인플루언서(Influencer)’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중앙일보 2020.08.31).

또한 일부 그리스도인의 경우 유튜버들의 시선을 끌고 조회 수를 늘리는 방편으로 선정적인 기독교 관련 영상들을 올리기도 한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다루는 영상들이 대표 격이다. ‘666 이야기’는 기본이고 ‘베리칩’과 ‘그림자 정부’ 등 음모론에 기대어 종말론이 바른 성경의 이해나 근거 없이 유튜브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지나치게 사적이고 주관적인 유튜브 방송 콘텐츠는 조회 수를 늘리는 일에 도움

이 될지 몰라도 성경적 사실에 대한 왜곡을 일으키며 교회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게 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1인 미디어의 특성상 크리에이터의 주관성은 유튜브의 강력한 특징이지만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갖추지 않는다면 성경을 왜곡하고 건강한 신앙을 훼손시킬 우려를 함께 안고 있다.

쉐퍼는 철저한 복음의 전도자로서 라브리 공동체의 책임자였지만 라브리의 재정을 위해 광고를 하거나 어떠한 수익사업을 한 일이 없었다. 즉 라브리의 인기를 구하거나 물질적 풍요를 구하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할 뿐이었다. 쉐퍼가 지성을 사용한 기독교 변증 사역을 실천할 때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일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성공적인 사역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는 라브리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직접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몇 명의 사람만이 와서 열심히 질문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더 커지거나 달라져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20세기에도 새롭고 독창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달라고 말했습니다(Schaeffer, 2018: 191-192).

쉐퍼는 라브리 형성 초기부터 라브리를 확장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특히 ‘기도의 날’을 정하여 라브리 멤버들 각자가 30분씩 원하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스케줄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하루하루의 필요가 다 채워졌고, 세금을 내지 못한 적도 없었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군가를 돌려보내야 했던 적도 없었다(Schaeffer, 2018: 244-247).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유튜브 안에서도 여전히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의 확장과 영혼 구원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선정성과 상업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함으로써 유튜브가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기독교 변증의 최종적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만의 유튜브 활용 전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V. 결론-한국교회를 향한 제언

이 논문은 프란시스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에 따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유튜브를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 전파를 위해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무신론이 득

세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프란시스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은 유튜브에서 활용 가능한 기독교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은 성경의 ‘문화명령(Culture Mandate, 창1:28)’과 ‘선교명령(Mission Mandate, 마28:19-20)’에 바탕을 두고 충실히 이행되었으며, 그가 라브리 공동체 활동을 통해 경험된 결과란 점에서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은 무신론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변론하는 가운데 사용되었고, 그 결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아울러 당시 테이프와 출판 그리고 영화 등의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은 유튜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튜브를 대하는 교회의 자세를 볼 때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교회는 그동안 남이 만든 것을 보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산자의 역할을 경험하면서 유튜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 드러본 경험은 선교나 교제, 교육 등 다른 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코로나19가 앞으로 전개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튜브는 현실 못지않은 중요한 사역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 교회는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과 같은 비대면 문화가 사회 전반에 끼칠 큰 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트렌드 분석가인 김용섭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가 가져올 종교의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분명 종교가 오프라인 기반의 ‘공간’ 중심, ‘종교 지도자’ 중심에서 벗어나는 답을 찾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인기 유튜버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특이하거나 재미있는 방식으로 예배나 설교를 하는 일은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할 뿐 대세는 아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용섭, 2020: 256-257).

유튜브의 놀라운 기능을 경험한 한국 교회가 유튜브의 영향력을 간파하고 인기 유튜버들처럼 재미 중심의 사역을 펼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교회사역에 있어서 변화가 예고되어 있음을 김용섭은 분명히 밝혔다. 그 변화는 전통적인 한국교회 문화의 중심으로 여겨지던 예배당과 목회자 중심에서 벗어나는 일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즉 탈예배당과 탈성직자의 경향 속에서 평신도 전문가들이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사역의 모습을 보는 날이 곧 올 수 있다.

비대면 문화가 생활의 한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교회는 프란시스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에 따라서 유튜브를 활용하는 지혜와 능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다도 유튜브 사회를 바라보는 교회가 대면 문화 때와는 다른 인식의 변화를 갖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유튜브의 현실에 맞는 문화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교회는 성경학습과 신앙훈련을 받은 평신도 전문가들에게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역할을 담당시킬 필요가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튜브 안에서 문화선교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일은 상업주의에 따른 세속화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기도와 경건의 신앙생활이 밑바탕을 이루는 가운데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김영환(2007), **미디어 삼국지-미디어 환경 변화를 읽는 하나의 시각**.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Kim, Y. H., (2007). *Media Three Kingdoms-One View of Changing the Media Environment*. Seoul: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김용섭(2020), **언컨택트**. 서울:퍼블리온.

[Kim, Y. S.(2020). *Uncontact*. Seoul: Publion.]

성인경(1998). **아담과 문화를 논할 때**, 서울: 낮은울타리

[Seong, I. K., (1998). *When discussing culture with Adam*. Seoul: Nadeunwooltari.]

성인경 엮음(1996). **프란시스 쉐퍼 읽기**,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Seong, I. K., (Ed.)(1996). *Read Francis Schaefer*. Seoul:Yeyoung Communications.]

윤영훈 엮음(2010), **문화시대의 창의적 그리스도인**, 서울:두란노아카데미

[Yoon, Y. H., (Ed.)(2010). *Creative Christians of the Cultural Age*. Seoul:Duranno Academy.]

이상원(2003). **프란시스 쉐퍼의 기독교 세계관과 윤리**, 서울:살림출판사.

[Lee, S. W., (2003). *Schaeffer's Christian Worldview and Ethics*. Seoul: Salleem Publishing House.]

임홍택(2019). **90년생이 온다**, 서울:웨일북.

[Im, H. T., (2019). *The 90s are coming*. Seoul:Whalebook.]

2. 번역서

김진홍 역(2001). **예술과 성경**, Schaefer, Francis(1998), *Art & the Bible*. 서울:생명의 말씀사.

[Kim, J.H.(2001). *Art & the Bible*. Seoul:IVP. Trans. Schaefer, Francis(1998), *Art & the Bible*. Downers Grove:IVP]

문석호 역(1994), **기독교 문화관**, Schaeffer A. Francis(1982), *The Complete Works of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Worldview Volume One*.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

[Moon, S.H.(1994). : *Christian Vview of Culture: Cristian Digest*. Trans. *he Complete Works of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Worldview Volume One*, Westchester:Crossway]

- 박삼영 역(1995), **프란시스 웨퍼의 생애와 사상**, Dennis, Lane T.(1986), *Francis A. Schaeffer:Portraits of the man and His Work*, 서울:한국로고스연구원
- [Park, S.Y.(1995). *Francis Schaeffer's Life and Work*: Korea Logos Research Institute. Trans. Dennis, Lane T.(1986), *Francis A. Schaeffer:Portraits of the man and His Work*. Westchester:Crossway Books]
- 양유신 역(2010).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Lancaster, Lynne C · Stillman, David(2010), *The M-FACTOR*. 서울:도서출판 더숲
- [Yang, Y.S., (2010). *Millennial Generation*. Seoul:TheSouppub Press. Trans. Lancaster, Lynne C · Stillman, David(2010), *The M-FACTOR*. Old Saybrook:Tantor Media]
- 양혜원 역(2009). **웨퍼의 편지**, *Schaeffer A. Francis(1985), Letter of Francis A. Schaeffer*. 서울:홍성사.
- [Yang, H.W.(2005). *Letter of Francis A. Schaeffer*: Hong Sung Sa. Trans. Schaeffer A. Francis, (1985), *Letter of Francis A. Schaeffer*, Wheaton:Crossway]
- 양혜원 역(2018). **이디스 웨퍼의 라브리 이야기**, Schaeffer, Edith, *L'abri(1992), Edith Schaeffer's, L'abri Story*, 서울:홍성사
- [Yang, H.W.(2018), *Edith Schaeffer's, L'abri Story*: Hong Sung Sa. Trans. Scaaeffer, Edith, (1992), *L'abri New Expanded Edition*, Wheaton:Crossway]
- 이현경 역(2017), **플랫폼 레볼루션**, Parker, Geoffrey(2016), *Platform Revolution*, 서울:부키.
- [Lee, H.K.(2017). *Platform Revolution*: Bookie. Trans. Parker, Geoffrey(2016), *Platform Revolution*. NewYork:Norton Paperback]
- 한국라브리 번역위원회 역.(1995). **현대문화 속의 전도**, Barrs, Jerram(1991), *Learning Evangelism from Jesus*. 서울:예영커뮤니케이션.
- [Korea Labri Translation Committee (1995). *Missionary Work in Modern Culture*. Seoul:Yeyoung Communications. Trans. Duriez, Colin(2008), *Francis Schaeffer: An Authentic Life*, Wheaton:Crossway]
- 홍병룡 역(2009). **프란시스 웨퍼**, Duriez, Colin(2008), *Francis Schaeffer: An Authentic Life*. 서울:복 있는 사람.
- [Hong, B.R.(2009). : *Francis Schaeffer*: Bokitnunsaram. Trans. Duriez, Colin(2008), *Francis*

Schaeffer: An Authentic Life, Wheaton:Crossway]

홍병룡 역(2006). **완전한 진리**, Perccey, Nancy(2004, 2005), *Total Truth*, 서울:복 있는 사람.

[Hong, B.R.(2006). *Total Truth*. Seoul: Bokitnunsaram. Trans. Perccey, Nancy(2004, 2005), *Total Truth*, Wheaton:Crossway]

3. 인터넷 자료

나스미디어, “2019 인터넷 조사 NPR”, <https://www.nasmedia.co.kr/NPR/2019%EB%85%84>(검색일 2020.07.01.)

[“2019 Internet User Survey NPR”, NASMEDIA. Retrieved from <https://www.nasmedia.co.kr/NPR/2019%EB%85%84> (2020.07.01.)]

나스미디어, “2020 인터넷 조사 NPR“ <https://www.nasmedia.co.kr/NPR/2020>(검색일 2020.08.05.).

[“2020 Internet User Survey NPR”, NASMEDIA. Retrieved from <https://www.nasmedia.co.kr/NPR/2020/>.(2020.08.05.)]

베타경제 2020.07.28., “유튜브,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쓴 동영상앱 ‘1위’...1인당 평균 1, 540분 이용.” <http://www.betaec.net/article/1213415#csidx9347979ca51e4be99d8f5854aafcfa0>.(검색일 2020.07.31.)

[“Youtube, the most popular video app used by Koreans...Use an average of 1, 540 minutes per person.”, Beta Economics(2020.07.28.). Retrieved from <http://www.betaec.net/article/1213415#csidx9347979ca51e4be99d8f5854aafcfa0>. (2020.07.31.)]

서울경제 2018.12.13., “초등생 꿈 1위 ‘교사→운동선수’...유튜버, 첫 10위권 진입.”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G7AKA1K> (검색일 2020.06.30.)

[“1st drea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teacher → athlete’...Youtuber, First Top 10”, Seoul Economics(2018.12.13.). Retrieved from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G7AKA1K> (2020. 06.30)]

서울신문 2019. 04.15., “또 BTS, 37시간 만에 1억뷰 앨범 300만장 예약”

https://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15001016&wlog_tag3=daum(검색일

2020. 08.05)

[“BTS also booked 3 million views in 37 hours”, Seoul Newspaper(2019.04.15). Retrived from https://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15001016&wlog_tag3=daum (2020.08.05.)]

중앙일보 2020.08.31., “내일부터 SNS ‘뒷광고’ 금지...과거 게시물도 고쳐야.” <https://news.joins.com/article/23860751>.(검색일 2020.09. 07.)

[“Starting tomorrow, social media ‘back advertisement’ is prohibited...need to fix past posts.” Jooangilbo(2020.08.31.). Retrieved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3860751>. (2020.09 07.)]

컨슈머포스트 2020.07.09., “한국, 스마트폰 보급률 1위에 올라” <http://www.consumer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46>(검색일 2020.07.18).

[“South Korea Ranked No. 1 in smartphone distribution”, Consumer Post(2020.07.09.). Retrieved from <http://www.consumer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46> (2020.07.18.)]

CSI BRIDGE 2020. 03.12., “코로나 19상황, 한국교회 온라인 예배 현황 설문조사 결과” <https://csibridge.org/82>(검색일 2020. 08. 15)

[“Corona19 Situation, Survey of Korean Church’s Online Worship Status”, CSI BRIDGE (2020. 03.12). Retrived from <https://csibridge.org/82>(2020.08.15.)]

“Top YouTube Statistics That Matter In 2020”, Social Media Today(2020.04.19.). Retrieved from <https://www.socialmediatoday.com/news/top-youtube-statistics-that-matter-in-2020-infographic/576242/>(2020.07.30.)

프란시스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에 따른 유튜브의 이해와 활용*

Understanding and Utilizing of YouTube by Francis Schaeffer's Christian Apologetics

강진구(고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란시스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에 따라 유튜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첫째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유튜브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프란시스 쉐퍼의 '변증학(Apologetics)'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쉐퍼는 '변증학'의 목적을 방어(defense)와 전달(communication)이라고 말하였다. 방어는 비기독교 혹은 반기독교적 메시지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논증적 방어이다. 전달은 어떤 특정한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기독교를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유튜브의 기술적 특징을 잘 활용하고 프란시스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다마스쿠스 TV'는 유튜브 세계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의 관심을 모으며 기독교 변증 전략을 펼치는 기독교 유튜브 채널이다.

셋째는 유튜브의 미디어적 특성을 밝히고 아울러 프란시스 쉐퍼가 라브리에서 기독교 변증학을 실천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을 연구하여 유튜브에 적용한다. 프란시스 쉐퍼는 라브리 사역을 통해 기독교 변증학을 몸소 실천했는데 뜻밖에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유튜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의 결론에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두 가지를 제언할 수 있다. 하나는 유튜브 사회를 바라보는 교회의 변화된 인식이며, 다른 하나는 유튜브의 현실에 맞는 문화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이것은 교회가 유튜브를 사역의 현장이며 도구로 삼았을 때 과거와는 다른 인식과 자세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주제어 : 유튜브, 프란시스 쉐퍼, 기독교 변증학, 다마스쿠스 TV, 기독교 세계관